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수군의회의원선거(장수군 가선거구)

책자형선거공보

다같이 잘사는장수! 다함께 행복한장수!

장수군민주연합청년동지회 창단멤버(전)
장수군농민회 창단멤버(전)
평민당 장수연락소 사무장/부소장(전)
민주통합당 연락소장(전)
장수군경영인연합회 정책부회장(전)
장수군회계협회 회장(전)
토마토양액재배 회장(전)
장수군JC특우회 회장(전)
사과작목반-수분작목반 회장(현)
장수읍번영회 이사(현)

장수군의의원 후보

1

다

임정권

더불어
민주당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장수군의회의원선거 (장수군가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세)	직업	학력	경력
1-다	더불어민주당	임정권	남	1960. 05. 01. (66세)	농업인	한경대학교 (현,한경국립대학교) 생명공학과 졸업	(전) 민주통합당장수군연락소장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 산 상 황 (천원)					병 역 사 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이상 직계비속
403,128	366,284	36,844	해당없음	장남 : 고지거부 차남 : 고지거부 삼남 : 고지거부 손녀1 : 없음	육군 일병 (복무만료, 소집해제)	해당없음	-장남:육군병장 (만기전역) -차남:육군이병 복무만료(소집해제) -삼남:육군병장 (만기전역)

3. 세금 납부 · 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 분	납 세 액	체 납 내 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1,661	0	0	해당없음
후 보 자	298	0	0	
배 우 자	189	0	0	
직 계 존 속	0	0	0	
직 계 비 속	1,174	0	0	

4. 소명서

해당없음

임정권의 굳은 다짐

약속드립니다!

“준비된 40년, 장수의 가치를 키울 확실한 일꾼입니다”

장수 농민으로 살며 장수를 지켜왔습니다.
농민의 고충은 책상 위 보고서가 아니라,
제 거친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장수군민과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40여 년의 정당 활동과 민주당 연락소장의 경험은
오직 장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었습니다.

준비된 실력으로, 준비된 정책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장수 농민을 위해,
장수 군민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큰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소외되는 이웃 없이 누구나 기댈 수 있는
“모두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다같이 잘사는 장수
다함께 행복한 장수**

**저 임정권이
약속하겠습니다!**



1 예산은 규모보다 흐름

"수백억 예산 자랑보다, 당신의 일상을 바꾸는 물길이 되겠습니다."

거창한 토목 공사나 건물 짓기에 치중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은 저수지의 물 양이 아니라 메마른 논밭으로 흐르는 물줄기여야 합니다. 군민의 안방과 일터에 혜택이 직접 닿도록 예산의 방향을 바로잡겠습니다.

- 생활 밀착형 예산제: 마을 단위 노후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즉시 교체
- 이동권 보장: 병원 진료 및 장날 맞춤형 행복콜 확대 운영
- 체감형 복지: 경로당 생활 가전 및 냉난방비 현실화 지원

2 민원은 장수를 바꾸는 아이디어

"불편함은 골칫거리가 아니라, 장수를 고칠 가장 확실한 정답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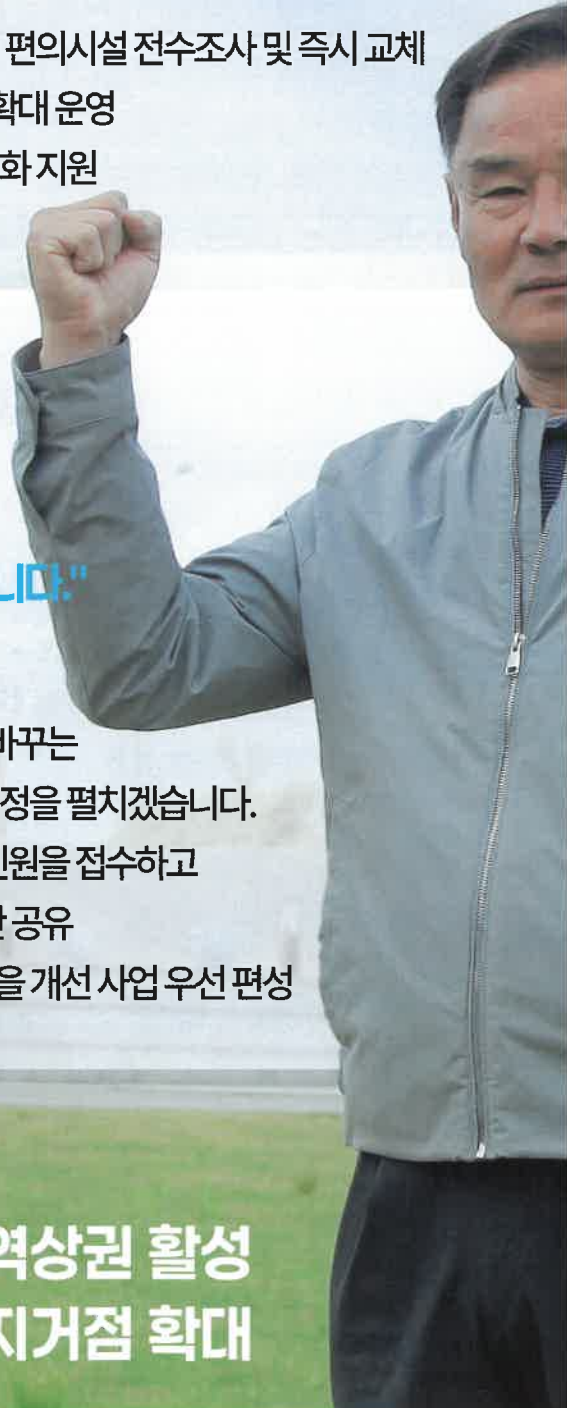
민원을 행정의 부담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민이 느끼는 일상의 불편함을 장수의 내일을 바꾸는 소중한 힌트로 삼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 이동식 '민원 소통실' 운영: 복잡한 절차 없이 민원을 접수하고 마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 과정을 실시간 공유
- 주민 참여 예산 확대: 주민이 제안한 소규모 마을 개선 사업 우선 편성

1-다

같이 잘사는 지역상권 활성화
함께 행복한 복지거점 확대



3 정책의 사각지대, 빈틈없는 뒷배

"행정의 시선이 닿지 않던 밭고랑 끝까지 정책의 혜택을 채우겠습니다."

획일적인 기준 때문에 혜택에서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공평한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행정이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장수 군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한 권리를 누리게 하겠습니다.

- 소농 고령농 맞춤형 지원: 대규모사업 위주에서 벗어난 소규모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 확대
- 농업 조례 개정: 귀농 정책 위주에서 소외된 후계농, 행정적 차별 없는 조례 제정

4 명절에만 보는 자식, 매일 보는 장수

"떠나는 고향이 아닌, 일자리가 있어 돌아오는 장수를 만들겠습니다."

이들 딸들이 고향을 떠나는 이유는 먹고살 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소득원과 농업 자립 기반을 행정이 책임지고 구축하겠습니다.

- 청년 농업인 정착금 지원:

초기 정착 단계의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안정 자금 지원

- 공공형 일자리 창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 및 마을 기업 육성으로 상시 고용 창출

- 전략적 농업 품목 육성:

농가 소득 증대로 전업농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소득작물 개발 및 사과, 한우, 상추, 양파, 스마트팜 지원 확대

1-다 같이 잘사는 농업예산 확대
함께 행복한 일자리 창출

나의 고향 장수, 당신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밭고랑이

안녕하세요 이웃 여러분!

저는 오늘 거창한 정치인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흙을 만지며 살아온 '농민'의 이름으로

예산은 숫자 자랑이 아닙니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해도 내 논에 물줄기 하나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은 수백억 토목 공사가 아니라, 내가 타는
우리 아이가 놀 곳이 생기며, 땀 흘려 지은 농사가 제값을 받는 '당연한 일상'이라는 것

40년을 기다리고 준비했습니다.

민주당 연락소장으로, 또 이름 없는 정당 활동가로 장수를 지키며 배운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정치는 책상이 아니라 밭고랑 끝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획일적인 행정 때문에 눈물짓는 소농, 고령농의 서러움을 제가 끝내겠습니다.

명절에만 오는 자식이 아니라, 매일 곁을 지키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산서의 들판에서, 번암의 산자락에서, 장수의 골목에서 여러분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우리 자식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희망'을

다같이 잘사는 장수, 다함께 행복한 장수를 만들겠습니다.

말만 앞서지 않고, 현장의 고통을 몸소 겪으며 해법을 준비한 사람은 저 임정권 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장수의 내일을 바꾸는 확실한 정답지로 만들어 주십시오.

장수군 가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임정권** 올림

이제입니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가 조금 더 빨리 오고,

가장 부지런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길을 반드시 열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장수군의원 후보

1-다
임정권

장수의 **1**은 “**다**”
해내겠습니다!